

턱교정수술 교합평면 변화의 표과

악교정외과 연구회
대구파티마병원
안재진
전준영치과의원
전준영

얼굴은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체일부로서 안모변형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결점으로 작용한다.

동양계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서양계와는 달리 Class II보다 Class III형태의 안모변형이 많아 소위 ‘주걱턱’ 형태의 돌출된 턱과, 치열의 반대교합으로 인하여 하순이 상순보다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상악골의 열성장이 동반된 경우 안모는 합죽한 모습을 나타낸다.

Class III형태의 안모변형을 가진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교정치료와 턱교정수술을 시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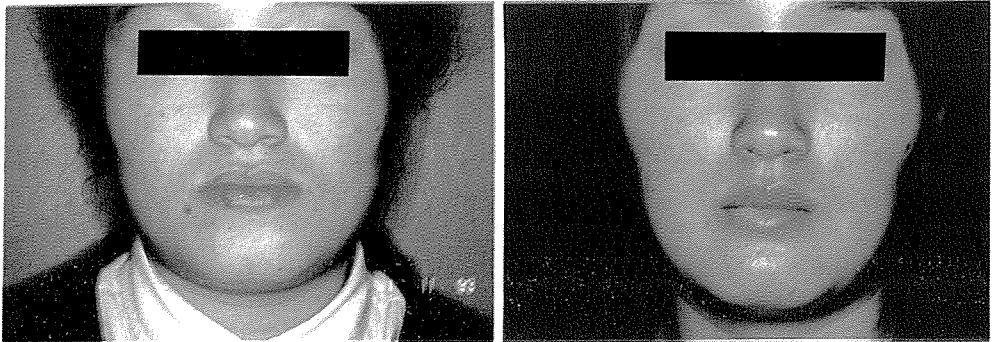


그림 1. 짧고 넓은 시각진 안모가 상악골의 Lefort I 골절단술, genioplasty로 길어지고 하악골의 시상분할 골절단술에 의하여 돌출된 턱이 뒤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안모가 여성스럽고 심미적으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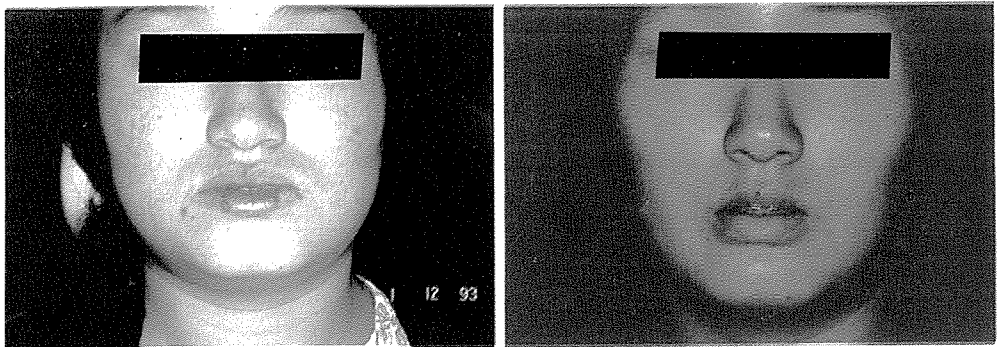


그림 2. 미소를 지었을 때 상악전치 대신 하악전치가 노출되어 부자연스럽던 안모가 Lefort I 골절단술로 상악골을 전방에서 4mm 하방으로 이동시켜 길이를 증가시키고 하악골을 setback 시켜줌으로서 술후 미소를 지었을 때 상악전치가 노출되어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맞춰 들다 시행하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 증례는 골격성 Class III 안모변형을 가진 21세의 여성환자로 수년전 전치부 반대교합 개선을 위해 교정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하악골의 전방 과성장과 상악골의 전하방 성장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넓고, 짧은 사각진안모를 보여줌으로서 여성스럽지 못한 인상이었다. 또한 미소를 지었을 때 상악전치가 보이지 않고 반대로 하악전치가 보임으로서 무치악 안모처럼 합죽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환자의 두부방사선 사진을 분석한 결과 두개기저부에 대해 하악골은 전방으로 과성장 되어 있고 상악골의 전후방 성장은 정상이었으나 고경이 짧았으며, 교합평면이 FH평면에 대해 거의 수평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악에서 Lefort I 골절단술을 시행하여 down fracture 시킨 후 상악골을 전방에서만 4mm 하방으로 이동시켜 고정하였고, 하악에서는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시행하여 하악골을 9mm setback 시킨 후 고정하였다. 한편 턱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genioplasty를 시술하여 chin을 4mm 길게 하여 주었다.

상기와 같은 턱교정수술을 통하여 하악골이 setback된 것과 덧붙여 교합평면은 FH평면에 대해 2°에서 10°로 경사도가 증가되었고 mandibular plane angle도 22°에서 29°로 증가되어 안모길이가 길어짐으로서 전체적인 얼굴모습이 훨씬 여성스러운 모양이 되었다. 또한 웃는 모습에서 상악전치가 노출되므로써 더욱 개성미가 있어 보였다.

술후 환자는 개선된 안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변화된 하악위치에서 최적 교합기능을 얻기 위하여 술후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그림 3. 돌출된 턱으로 인하여 합죽해 보이던 환자의 측모가 시상분할 골절단술로 하악골을 setback 시키고 genioplasty로 턱의 길이를 늘려주어 심미적인 측모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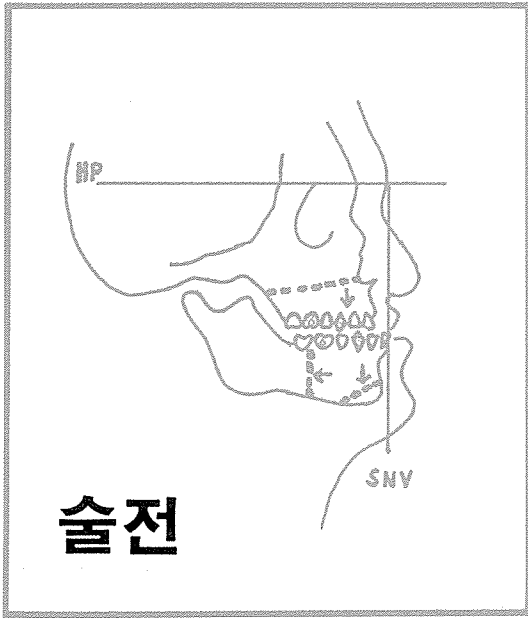


그림 4. 술전, 술후의 모식도로서 상악골의 Lefort I 골절단술로 전방부에서 4mm 하방이동시키고 하악골의 시상분할 골절단수로 9mm setback 하였고 genioplasty로 턱의 길이를 4mm 늘려 주었다.